

美 칼튼 영상사업부 인수

세계 4위의 가전업체인 프랑스의 톰슨멀티미디어가 미국 칼튼커뮤니케이션 산하의 영상물 제조·전송사업부문인 테크니컬러를 21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RCA」 브랜드의 TV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톰슨은 이번에 인수하는 테크니컬러를 영화 등 영상물을 방송국에 디지털 전송하는 사업부문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톰슨은 13억50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7억5000만달러는 자사 지분의 5.5%에 상당하는 1550만주 신주발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1920년대 세계 최초로 영화에 컬러를 도입한 테크니컬러는 현재 위성을 경유해 영화관에 영화를 전송하는 시스템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이동통신 기술개발 업체인 쉐콤과 합작 벤처를 설립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인수는 톰슨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포트폴리오의 하나」라고 평가하며 「이 회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TV 네트워크 대상의 영상전송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15년 설립된 테크니컬러는 DVD타이틀 제작 세계 최대 업

체로 9월말 마감한 지난 회계연도에 16억달러의 매출에 2억4900만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한편 칼튼은 톰슨의 양방향 TV벤처인 탁(Tak)에 15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온주입장치 공동 개발

도시바와 일본진공기술이 반도체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공동 개발했다.

이들 두 회사는 실리콘 기판에 정보를 담당하는 전자를 집적시키는 「이온주입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25장 웨이퍼(직경 8인치)의 처리시간을 기존장치보다 4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으며 웨이퍼 한장당 제조원가를 설비투자 회수비를 포함,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테퍼(축소투영 노광장치) 등 일부 고가의 장치들이 필요없어 공장의 설비투자 절감 및 공정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제조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반도체업계에서 이 기술은 원가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온주입공정은 고밀도집적회로(LSI) 모든 제조원가의 10%, 제조시간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노광 및 레지스트도포, 현상, 제거 등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개발한 이온주입장치는 특히 노광공정이 불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이온주입공정은 레지스트(감광성수지)를 웨이퍼상에도포한 후 노광장치를 사용해 웨이퍼상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고 그 패턴에 따라 이온을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장치를 사용하면 하나의 장치만으로 웨이퍼로부터 트랜지스터 기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도시바의 공정기술 추진센터 관계자는 「지금의 반도체 제조기술은 아직 혁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바는 이 장치를 자사의 공장에 오는 2002년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등 단말기용 日 컬러 LCD시장 '후끈'

도시바·히타치제작소·마쓰시타 전기산업·NEC 등 일본

News

해외업계소식

전자업체들이 차세대이동통신 (IMT2000) 단말기용 컬러 액정 표시장치(LCD) 시장에 진출한다.

이들 업체는 휴대폰 단말기 시장이 내년 IMT2000 사업 본격화와 함께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컬러 LCD 시장 규모도 오는 2005년까지 약 1조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컬러 동영상 대응기종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봄 생산을 목표로 휴대폰용 컬러 LCD 양산체제 구축에 나선다.

도시바는 후카다니공장(사이타마현)과 히로공장(효고현)의 라인 개조를 위해 100억엔을 투자, 휴대폰 단말기용 컬러 LCD를 내년 봄 월 200만개 생산한다.

마쓰시타는 이미 양산하고 있는 정지화면만을 표시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용 컬러 LCD에 이어 내년 봄에는 동양상도 표시할 수 있는 신형 LCD를 양산해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에 판매한다.

또 히타치는 PC용 LCD의 생산거점인 시게하라공장(지바현)에서 휴대폰 단말기용 LCD를 양산해 내년 봄부터 시장에 본격 투입한다.

이밖에 NEC와 카시오계산기는 개발과 생산에서 긴밀히 협력, 내년 봄 휴대폰 단말기용 컬러 LCD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합의했다.

각 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박막트랜지스터(TFT) LCD 방

식의 고품질 LCD다.

휴대폰 단말기용 LCD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400억엔(99년 기준)으로 현재 세이코옵슨과 샤프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태국 디지털폰과 GSM 계약

핀란드의 텔레콤 장비업체 노키아는 태국의 디지털폰으로부터 8500만달러 상당의 GSM(유럽형디지털이동전화표준) 네트워크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의 이동전화 메이커이기도 한 노키아는 이번 계약에 따라 디지털 폰에 대해 모바일 스위칭센터와 베이스 스테이션, 무선전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네트워크는 태국수도 방콕과 도심 지역에 즉각 깔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GSM은 모바일 통신을 위한 전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동전화 표준이다.

보급형 CPU 2종 한국 공급

보급형(value)PC를 겨냥해 저가형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비아가 내놓은 제품은 기존 「사이릭스Ⅲ」 제품군 중 최고 클럭속도를 가진 650·667MHz 2종으로 보급형PC를 겨냥한 만큼 제품 가격은 55~6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0.18미크론 공정에 다이(die) 크기가 75mm이며 128K비트의 L1 캐시 메모리, 133MHz 프런트사이드버스(FSB)를 채택했다.

비아의 국내대리점인 에프앰컴은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 기능 구현도 가능, 보급형PC와 인터넷 응용기에 적합하다」면서 「이 제품의 샘플이 삼성전자·삼보컴퓨터 등에 공급돼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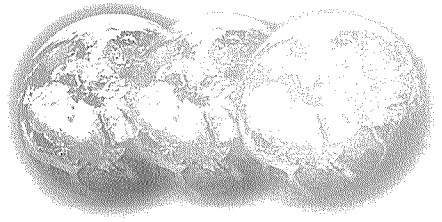
위성 디지털방송 수신기 증산

일본 가전업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본방송에 들어간 방송위성(BS)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와 튜너의 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 전체 생산능력은 지난해 11월 초순의 월 12만대에서 연내 18만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전업체들이 BS방송수신기

대만 비아(Via)테크놀로지



의 증산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해 9월 시험방송 이후 꾸준한 판매 증가로 수주 잔고가 늘어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체 BS디지털방송수신기 출하대수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약 20만대인데, 튜너(약 10만엔)와 TV(32인치형 약 40만엔)가 2대 1의 비율로 출하되고 있다고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9만대를 출하한 마쓰시타전기산업은 2만5000대인 월산능력을 최근 6만5000대로 끌어올렸다. 3만대를 출하한 도시바는 1만6000대인 월산능력을 연내 2만7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반도체 칩 케임브리지대서 개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과학자들이 컬러잡지를 인쇄하는 것처럼 쉽게 그리고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반도체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체에 반도체를 내장해 이들을 '지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아주 작은 크기의 전도성 플라스틱 방울을 지능화시킬 물체에 분사

해 줌으로써 옷감이나 심지어 종이 표면에까지도 반도체를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유연성이 있고 매우 얇으며 제조비용이 수천배나 싸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업계가 가장 기다려온 기술로 반도체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물리학과와 리처드 프렌드 교수는 "당신이 마시는 요구르트가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다고 말해 주는 정도의 비교적 낮은 지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액정모니터시장 '급팽창'

세계 액정모니터 시장이 올해와 내년 전년비 각각 1.5배와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1400만대 이상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MA에 따르면 데스크톱 PC에 사용되는 액정모니터 세계 출하대수는 올 3분기에 전년동기비 45% 증가한 205만2000대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는 75% 늘어난 237만9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비 46% 증가한 711만3000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액정모니터 출하가 급증하는 것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와 선두권 진입을 겨냥한 대만업체들의 생산 확대가 맞물리는 등 생산과 수요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력 제품인 15인치 액정모니터의 경우 3분기 470달러를 밀도는 가격에서 거래됐다.

닛케이MA는 또 「대만 업체의 몰량 공세와 가격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수요 확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세계 액정모니터 출하대수는 올해보다 98%나 증가한 1409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별로는 대만 업체들의 생산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의 올 3분기 생산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한 100만대를 넘어섰으며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0%에 달했다. 대만 업체들은 IBM·뷰소닉 등 미국 PC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OEM 물량을 대량확보해 놓고 있다.

지난해 이후 부진을 보여왔던 일본 업체들의 생산은 하반기 이후 국내 시장 회복에 힘입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지난 3분기 생산대수는 66만6000대로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선이다.

한편 세계 액정모니터 시장은

News

애외업계소식

지난해말까지 일본 시장이 전체 수요의 60% 이상(99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 들어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크게 늘어 업체들의 관심이 이들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고 넷케이MA는 분석했다.

일본텔레콤 웹호스팅 사업 강화

일본텔레콤이 미국의 AT&T,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과 웹호스팅 사업에서 손을 잡았다.

「아시아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텔레콤은 AT&T, BT와 일본·미국·유럽 등지에서 3사가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웹호스팅 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텔레콤은 이번 합의로 미국과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웹호스팅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으며 AT&T와 BT도 일본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내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일본 고객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총 30개의 데이터센터는 일본에 2개, 미국에 8개가 있으며 나머지 20개는 유럽 9개국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텔레콤의 데이터사업 부

문 자회사인 JENS의 CEO 나카노 유타카는 「세계적 통신업체인 AT&T, BT와의 제휴로 해외 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올해 2월 도쿄 근교에 IDC를 추가로 설치하고 앞으로 그 수를 계속 늘려 국내 사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T의 데이터사업부 이그니트의 버논 어빈 사장은 「이번 제휴로 웹호스팅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동사업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관련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웹호스팅 시장 규모는 올해 38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164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NEC-히타치 D램사업 공조 세계시장 재편 예고

일본의 NEC와 히타치가 합작으로 메모리 칩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D램 사업 부문을 통합하기로 결정, 세계 반도체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히타치 관계자는 “양사가 총 1천8백억엔(16억3000만달러)을 투입해 히로시마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사업 추진 속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NEC는 D램부문 시장

점유율이 세계 4위, 히타치는 7위에 랭크돼 향후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의 통합법인인 ‘엘피다메모리’가 본격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반도체분야에서 2인자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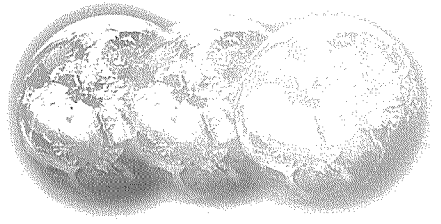
올해 전세계 D램 시장의 경쟁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日, 화합물 반도체 집중 투자

고속·저소비전력형 반도체로 알려진 화합물 반도체에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산업, 후지쯔, 미쓰비시 전기 등 일본 반도체 각사는 휴대폰 단말기, 광통신기기,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등의 수요로 급팽창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의 설비 투자 및 증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일본 반도체 각사들이 화합물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이 반도체가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잠재 시장도 커 급성장할 품목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화합물 반도체는 2가지 종류 이상의 원소에 서부터 만들어지는 반도체로



「갈륨」 「비소」 반도체가 그 대표적인 예다.

마쓰시타전기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마쓰시타전기공업은 1월 도야마현에 신공장을 착공, 오는 2002년 6월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투자액은 약 220억엔이며 생산능력은 6인치 웨이퍼 환산으로 월 6000장이다. 마쓰시타는 이 공장에서 휴대폰 단말기의 수신부에 사용되는 갈륨·비소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약 600억엔의 예상 매출이 기대되는 신공장이 가동되면 기존 오카야마 공장과 합쳐 마쓰시타의 화합물 반도체 생산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후지쯔컨텀디바이스는 올해 화합물 반도체 증산을 위한 추가 투자가 20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약 100억엔은 매초 10Gb(1G는 10억)의 전송이 가능한 고속통신기용 수발광소자(受發光素子) 등의 증산에 투입되고 있다. 또 약 60억엔은 기존 이와테공장의 시험 라인 설치에 사용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휴대폰 단말기용 화합물 반도체의 생산량을 올해 여름까지 현재보다 약 40% 늘린 월 500만개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올해 화합물 반도체의 사업 규모를 지난해 대비 60% 증강한 600억엔으로 보고 있으며 적극적인 증산을 통해 오는 2005년까지는

1700억엔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후지쯔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통신용 화합물 반도체의 올 세계시장 규모는 약 5700억엔으로 전년 대비 60%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연평균 20~30%의 성장이 예상된다.

日 DVD SW시장 급속 팽창

일본의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소프트웨어 시장이 올해 1000억엔대, 3년후에는 4000억엔 가까이 급팽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올해에는 프로테이프를 제치고 영상소프트웨어분야의 새 주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영상소프트웨어협회는 「DVD시장 예측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은 DVD시장 확대 전망을 내놨다.

일반소비자와 관련업체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DVD 소프트웨어 출하액이 최대일 때(최고 시나리오)와 그 반대 경우(최저 시나리오)인 두 가지 예측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 시나리오에서는 2003년 DVD소프트웨어의 일본내 출하액이 3417억엔으로 2000년(1043억엔)의 3.3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최고 시나리오에서는

2003년 출하액이 3982억엔으로 3.8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영상소프트웨어시장을 주도했던 프로테이프의 출하액은 지난해 전년비 14% 감소한 1824억엔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DVD소프트웨어 출하액이 프로테이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영상소프트웨어협회는 DVD소프트웨어시장의 이같은 급팽창에 대해 DVD전용플레이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급이 늘고 있는데다 소프트웨어 가격도 동반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협회는 또 DVD소프트웨어가 보급 확대와 함께 장르도 영화에서 음악·게임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오는 2005년에는 비(非)영화물이 전체 DVD소프트웨어의 3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

차세대 프로세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텔은 현재 상용화된 1.5기가헤르츠(GHz) 마이크로프로세서보다 처리속도가 10배나 빠른 초고속 제품을 개

News

해외업계소식

INTERNATIONAL NEWS

발했다.

인텔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소자 회의에서 이 칩을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2005년까지 상용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칩은 0.03 μ m 공정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03 μ m 공정기술은 컴퓨터의 최소 논리소자인 트랜지스터 게이트 크기를 원자 3개 크기인 0.03 μ m(300만분의 1cm)까지 소형화한 기술이다.

이는 현재 상용화된 가장 작은 트랜지스터 크기가 0.18 μ m인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에 불과하며 10만 개를 쌓아도 종이 한 장 두께 밖에 안되는 크기다.

인텔은 초고속 프로세서의 개발로 향후 지속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 향상과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인텔은 크리스마스 시즌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출시한 지 얼마 안된 펜티엄4의 가격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디오플레이어 내장 고성능 PDA 美 출시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고성능의 새 개인휴대단말기인 「자우루스 MI-EI」을 미국시장에 선보

였다.

샤프가 미국시장에 발표한 새 PDA는 기존의 PDA처럼 MP3 플레이어 지원하는 한편 MPEG4 비디오 플레이어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회사의 PDA 가운데 처음으로 키보드를 장착, e메일 송신시 문자 입력을 쉽게 했으며 e메일이 도착하면 이를 알려주는 타이머 기능도 갖고 있다.

이 PDA는 시큐어 디지털(SD)카드와 콤팩트 플래시(CF)카드도 내장하고 있으며 3.5인치 LCD 화면에 6만5536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NEC 노트북용 LCD 위탁생산 추이

세계 5위의 박막트랜지스터 액정 표시장치(TFT LCD) 공급업체인 일본 NEC가 일부 PC용 LCD를 외부에서 위탁생산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회사가 개인휴대단말기(PDA)나 휴대폰에 사용되는 소형 LCD 생산을 위해 제조라인을 바꾸면서 일부 노트북 PC용 LCD의 생산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C 디스플레이부문의 세코스미토 총무이사는 「현재 생산설비는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제조라인 조정으로 제품

부족이 생기면 아웃소싱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이나 대만의 LCD 제조업체에 14인치와 15인치 패널을 중심으로 위탁생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탁생산 제품은 NEC가 디자인하고 NEC 브랜드로 판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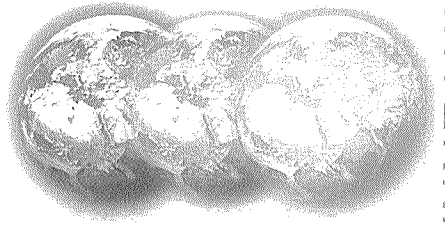
NEC가 이처럼 노트북PC용 중심으로 위탁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중대형 액정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형 액정의 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회사는 지난달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소형 액정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카시오계산기와 1.5~8인치 TFT LCD 생산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소형 증산을 위해 30억엔을 들여 아키타 공장을 개조중이다.

'마그네틱 램' 2004년 개발

기존 D램을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반도체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IBM과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는 전기충전 형식의 기존 D램과는 달리 마그네틱 충전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마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M램)」는 D램보다 가격면에서 월등히 싸고 그 속도는 S램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랩톱컴퓨터에 사용되는 전지의 수명은 8~10시간이지만 M램을 이용한 반도체의 경우 수년간 컴퓨터의 전원을 켜둔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e메일 등을 확인할 때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두 회사는 M램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04년 무렵으로 정하고 제품의 개발 및 양산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M램 제조 기술을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도 라이선스 공여, 보급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M램이 상용화되면 현재의 D램 시장은 판도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데이터캐스트는 세계 D램 시장의 올해 규모는 300억달러에 달하며 오는 2002년까지는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경쟁 '시작'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DA)간 차세대 이동통신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

영국의 BBC방송에 따르면 에릭슨과 노키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휴대폰 진영과 팜·핸드스프링이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 PDA 진영이 경쟁적인 제품출시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들의 제품출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누가 먼저 제품시장을 장악해 서비스와 연계시키는가 하는 것에 따라 차세대 통신시장의 주도권 쟁탈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진영은 인터넷 등에 연결돼 정보 검색에 나설 수 있는 휴대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릭슨은 대형 모니터를 장착해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은 물론 회의일정 등 갖가지 정보를 저장해두고 이를 외부에 전송할 수 있는 휴대폰 「R380」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노키아도 최근 인터넷 등의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대폭 개선한 휴대폰 「커뮤니케이터 9210」을 내놓았다.

이에 대응, 미국 팜과 핸드스프링은 물론 일본의 샤프 등 종합전자업체들까지 가세한 PDA 진영에서도 컴퓨터와 전자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단말기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선두업체인 팜이 최근 「팜 VIIx」를 내놓았으며 일본 샤프의 경우 「자우러스」 등 최신 PDA 제품들을 내놓았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키보드를 장착해 각종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으며 MP3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 핸드스프링이 「바이저폰」을 내놓았는데 휴대폰과 연결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PDA로 휴대폰 기능을 대부분 이용하면서 PDA에 담긴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접속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양측의 제품출시경쟁은 세계 5억 휴대폰 사용자의 약 67%를 확보하고 있는 유럽의 휴대폰 진영이 조금 유리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BBC는 그러나 최근 미·일 PDA 진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누가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제품을 통해 시장을 먼저 장악하는가가 주도권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